



등록번호	의회사무국-		담당자	문화복지 전문위원	의 정 담당관	의 회 사무국장	부의장	의 장	결 재
등록일자	2017. 8. 21.		최임구					8/21 결재	
결재일자	2017. 8. 21.		협 조	문화복지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공개여부	공 개			의정팀장	의사팀장				
담당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담 당 자	최 임 구							

## 「2017년 문화복지위원회」 공 무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 기 간 : 2017. 6. 25. ~ 7. 2 ( 6박 8일)
  - 장 소 : 캐나다 일원
  - 대 상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및 수행직원
- 

**고 양 시 의 회**  
[ 문 화 복 지 위 원 회 ]

## 〈 목 차 〉

I. 연 수 개 요	1
II. 연 수 주 요 일 정	2
III. 캐나 다 및 방 문 도 시 현 황	3
IV. 방 문 기 관 연 수 내 용	7
V. 시 사 점 및 발 굴 내 용	19
VI . 연 수 후 기 및 소 감	21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I 연수 개요

### 1 연수목적

- 가.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캐나다의 선진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 행정사례 연구
- 나. 복지선진국인 캐나다 세네카대학(유아교육학과) 방문을 통한 아동복지 연구방향과 우수 정책자료 수집
- 다. 나이가가라 관광청 방문을 통하여 우리 시 미래 관광산업 방향을 제시
- 라. 문화복지 분야 의원들에게 폭넓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연수개요

- 가. 연수기간 : 2017. 6. 25. ~ 7. 2. (6박8일)
- 나. 연수국가 : 캐나다(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킹스턴)
- 다. 연수인원 : 14명(연수자 명단 참조)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고양시의회	의 장	소 영 환	남	
2	“	문화복지위원장	이 규 열	남	단 장
3	“	부위원장	김 효 금	여	
4	“	위 원	고 부 미	여	
5	“	위 원	고 은 정	여	
6	“	위 원	김 미 현	여	
7	“	위 원	김 홍 두	남	
8	“	위 원	원 용 희	남	
9	“	위 원	장 제 환	남	
10	“	전문위원	주 시 운	남	
11	“	수행직원	신 효 정	여	
12	“	“	이 해 원	남	
13	“	“	최 임 구	남	
14	“	“	손 인 선	여	

II

연수 주요일정

일 자	도 시	주 요 일 정
제1일 6/25 (일)	인 천 토론토	토론토 도착 및 호텔투숙
제2일 6/26 (월)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오타와국회의사당 방문 리다운하 견학 총독관저 방문
제3일 6/27 (화)	몬트리올 퀘 벡 몬트리올	몽모렌시 폭포 견학 프랑스의 축소판 퀘벡시내 시찰(샤또 프롱트낙호텔, 화가의 거리, 듀프린 테라스, 아브라함 평원 등)
제4일 6/28 (수)	몬트리올 킹스턴	성요셉 성당, 노트담 성당 견학 자크 카르띠에 광장 견학 몬트리올 구시가지 이문화 시찰 천섬(Thousand Islands) 관람
제5일 6/29 (목)	킹스턴 토론토 나이아가라	토론토 구시청사, 신시청사 방문 하버프론트(CN타워) 견학 테이블락, 수력발전소, 꽃시계 견학 나이아가라 폭포 혼플라호(유람선) 체험
제6일 6/30 (금)	나이아가라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청 방문 토론토 세네카대학 방문 (캐나다 보육정책 및 유아교육시스템 견학)
제7일 7/1 (토)	토론토	토론토 공항 출발(날짜변경선 통과)
제8일 7/2 (일)	인 천	인천공항 도착

### Ⅲ

## 캐나다 및 방문도시 현황

### 1 일반현황



- ◆ 면적 : 9,984,670.0km<sup>2</sup> (세계2위)
- ◆ 위치 :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 ◆ 공식명칭 : CANADA
- ◆ 기후 : 대륙성기후, 한대성기후, 냉대성기후
- ◆ 인구 : 36,626,083명 (2017년)
- ◆ 수도 : 오타와(Ottawa)
- ◆ 최대도시 : 토론토(Toronto)
- ◆ 민족구성 : 영국계(28%), 프랑스계(23%), 유럽계
-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 정부/의회형태 : 연방의회제 / 다당제&양원제
- ◆ 종교 : 로마가톨릭(43%), 개신교(23%), 그리스도교
- ◆ 화폐 : 캐나다 달러(Can \$)
- ◆ 국화 : 사탕단풍
- ◆ 대륙 : 북아메리카
- ◆ 대한수교현황 : 남북한 동시수교(남한 1963년, 북한 2001년)

## ② 방문도시 현황

### 가. 토론토(Toronto)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북아메리카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아울러 온타리오 주의 주도(州都)이다. 19세기에는 캐나다의 수도였었다.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의 남부의 온타리오 호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 이민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고유의 문화를 유지한 채 살아가는 도시이다. 그런 만큼 토론토 특유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소수민족의 거주지들로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리틀이태리, 리틀자메이카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등 서인도 제도 이민자들의 거주 지역), 유대인 거주지, 인도인 거주지 등이 있다.
- 토론토를 대표하는 관광지로는 단연 CN타워를 들 수 있다. 이 타워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는 2010년 완공한 부르즈 할리파가 생기기 전, 30년간 인간이 만든 세계 최고(553.33m, 1810 ft)의 건물로 캐나다인들의 자부심이었다.

### 나. 오타와(Ottawa)

- 캐나다의 수도이자, 지방자치단체로 온타리오 주 내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남 온타리오 동부의 오타와 밸리에 위치한 이 도시는 오타와강 남쪽 유역에 있으며, 주요 수로는 온타리오와 퀘벡 지방 사이의 지역 경계선을 형성한다.
- 오타와강 북쪽 기슭의 이웃한 퀘벡 주의 가티노와는 여러 개의 다리들로 연결되는데, 두 도시와 주변 지역들은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있다. 별도의 자치정부에 의해 통치되지만, 이 지역 내에 연방 토지는 국립수도권개발위원회(NCC)가 관할하며, 연방 정부의 공공기업이 수도권의 기획 · 관리 및 공익에 대한 책임

을 담당한다.

- 많은 공원들과 큰 관청사들, 아름다운 거리들이 오타와의 아름다운 경치를 돋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국회의사당이 강변 언덕에 서 있으며, 그 언덕에는 전쟁 중에 전사한 캐나다군인들이 안장된 국립묘지가 있다.

#### 다. 몬트리올(Montreal)

- 캐나다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불어권 도시 중 하나이다.
- 1967년 세계 엑스포와 197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또한 몬트리올 세계 영화제, 몬트리올 국제 재즈 축제, 코미디 축제인 Just for Laughs (프랑스어: Juste pour rire), 캐나다 그랑프리 등 다양한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축제의 도시이다.
- 몬트리올에는 캐나다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은행들의 지점들이 있다. 도시에 있는 은행, 신용 조합과 다른 금융 기관들의 대부분이 캐나다 전역의 비즈니스와 산업의 번창에 기여하고 있다. 몬트리올 은행은 1817년에 설립된 캐나다 최초의 은행이며, 캐나다 최초의 증권 시장인 몬트리올 증권 거래소가 1874년에 열렸다.

#### 라. 퀘벡(Québec)

- 캐나다 퀘벡 주의 주도이다. 2011년 기준 도시의 인구는 51만 6,622명으로, 레비, 일도르레앙 지역 등을 포함한 광역 퀘벡의 인구는 76만 5,706명이다.
- 세인트로렌스강 하구에 강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지점에 위치하며, 퀘벡이라는 지명은 알곤킨 언어로는 "강이 좁아지는 곳"을 뜻한다. 퀘벡은 1608년에 프랑스 탐험가인 사무엘 드 샹플랭

이 이곳에 정착지를 세운 이후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퀘벡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도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성벽으로 1985년에는 구도심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퀘벡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구도심 근처에 있는 샤토 프롱트낙 호텔, 퀘벡 주의회, 퀘벡 주립미술관, 문명박물관 등이 있다.

#### 마. 킹스턴(Kingston)

- 토론토 북동쪽 220km 지점, 세인트로렌스강이 흘러드는 온타리오 호의 북쪽 연안에 있다.
- 1673년 카타라키 인디언 정착지에 모피 교역소이자 군사 요새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자는 프롱트낙 공작으로 17세기 후반에 뉴프랑스의 총독을 지낸 루이 드 뷔아드였다. 1758년 영국인들에게 파괴되었다가 1783년 영국 왕당파들이 재정착했고, 조지 3세를 기념해서 킹스턴이라고 명명했다. 곧 온타리오 호의 주요 해군기지로 성장했으며, 1841~44년에 어퍼캐나다와 로어캐나다 주 연합정부가 이곳에 세워졌다.
- 지금은 북동쪽으로 144km 떨어진 오타와에서 시작되는 리도 운하가 지나며, 세인트로렌스강 어귀에 있는 번화한 항구이다. 공업 또한 크게 발달해 있으며,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는 알루미늄 제품, 디젤 기관차와 엔진, 선박, 채광장비, 도자기 등이다.
- 퀸스대학(1841), 세인트조지 성당, 세인트메리 성당, 국제 하키 명예의 전당, 캐나다 왕립군사대학(1876), 국립방위대학, 캐나다 군사요원대학 등이 이곳에 있다. 1812년 전쟁 중에 설립되었다가 1830년대에 재건된 거대한 헨리 요새는 현재 군사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 1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청

- 방문일시 : 2017. 6. 30.(금) 10:30~
- 면담자 : 아나스타시아 벨라쇼브  
국제여행무역매니저
- 면담내용 : 나이아가라 폭포 소개  
및 관광인프라 구축 현황
- 홈페이지 : <http://niagarafallsusa.org/>



### ●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뉴욕 주 나이아가라 폴스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폴스의 국경을 이루는 나이아가라 강에 있는 폭포이다. 이리 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아가라 강이 온타리오 호로 들어가는 도중에 형성된 대폭포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개의 대형 폭포, 하나의 소형 폭포로 나뉘는데 이는 염소 섬(Goat Island)을 기준으로 캐나다령의 캐나다 폭포(말발굽 폭포, Horseshoe Falls)와 미국령의 미국 폭포(American Falls)로 구별된다. 소형 폭포인 브라이달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는 미국 영토에 있다. 폭포로 인해 주변은 항상 안개가 끼 있으며, 미국 쪽보다는 캐나다 쪽의 전망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 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치한 도시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도시 사이는 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측 나이아가라 폭포(The Horseshoe Falls)는 높이가 173ft(53m)이고 폭포의 절벽면이 깊이 파인 커브를 이루고 있어 그 길이가 2,600ft(790m)에 이른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강물의 양은 모두 합쳐 분당 168,000 m<sup>3</sup>

의 물이 능선(稜線, Crest Line)으로부터 떨어진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힘은 북미의 폭포들 중에서 가장 세다. 이 물 중 50~70%는 폭포에 이르기 전에 수력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1820년도에 들어서서 증기선의 운항이 시작되고 1840년도에 철도가 설치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나이아가라에서의 다이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총 2백19만 킬로와트 용량의 13개 발전기를 구비한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는 1961년에 설립되었다.

## ● 방문내용

- 연수단이 관광청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아나스타시아 벨라쇼브 국제여행무역 매니저였다. 매니저는 올해 3월 주한캐나다관광청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며 “안녕하세요”로 인사까지 하여 방문단은 깜짝 놀랐다.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리즘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권역으로 나누어 매니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매니저라는 소개로 시작된 설명은 나이아가라 폴스는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90분), 버팔로 나이아가라국제공항(30분), 해밀튼 국제공항(45분)과 인접하여 있으며, 나이아가라 폴스와 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에어버스가 공항과 주요 호텔들을 왕복 운행하는 등 접근성이 좋고 WEGO버스시스템을 운영하여 나이아가라 폴스 전 관광지를 1년 내내 순회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계절별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1월 나이아가라 아이스 와인축제, 4월~11월 쇼 연극 축제, 6월 나이아가라 새 빈티지 와인 축제, 7월 우정축제, 9월 나이아가라 와인 축제, 11월~1월 OPG겨울 빛의 축제 등 일년 내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 나이아가라 폭포를 즐기는 방법은 혼블로어 나이아가라크루즈와 헬기투어가 있으며, 크루즈의 경우 폭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고, 헬기투어는 웅장한 폭포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청 간담회



아나스타시아 벨라쇼브 매니저 기념품 전달

## ● 시사점

‘천둥소리가 나는 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나이아가라 폭포는 신의 창조섭리와 인간의 기술이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최대의 자연관광지다운 면모로 연간 1천 400만 명의 공식적인 방문객수와 30억 달러가 넘는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자연경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체험관광 자원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혜자원과 완벽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4성급이상 호텔 15,0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객실마다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놀랐다. 우리시의 관광인프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호텔유치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이아가라 폭포 유람선



나이아가라 폭포 야간 폭죽

## ② 세네카대학 [Seneca College]

- 방문일시 : 2017. 6. 30.(금) 15:00~16:30
- 면담자 : 세네카대학 학과장, 교수,  
한국유학생 등
- 면담내용 : 캐나다 보육정책 및 한국과  
캐나다의 보육현실 비교
- 홈페이지 : [www.senecacollege.ca/](http://www.senecacollege.ca/)



### ● 현 황

세네카 대학은 1967년도에 설립된 50년 전통의 명문 대학으로써 토론토와 옥지역에 10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북미최대규모의 대학으로 290여개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학과를 운영 중이며 4년제 학사과정, 실무중심의 2년 및 3년제 디플로마 과정 전문가 과정인 1년제 Post Graduate 과정 등 기업 및 산업체들이 선호하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된 실무중심의 교육방식과 최신설비의 학교시설, 실험실 및 첨단 컴퓨터시스템을 갖추어 학생들이 최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부설 어학연수프로그램(ELP)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명성을 얻고 있는 비즈니스학부와 패션디자인학부 외에도 호텔관리, 관광 및 항공서비스 학부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제학생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하나인 유아교육학과는 다양한 아동교육학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과정 중 하나다.

## ● 방문내용

- 메리피셔 학과장은 세네카 대학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고양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는 인사말과 함께 캐나다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자치제로 각 주 정부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교육권을 갖고 있어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즉 각 주의 교육목표에 의존하여 교육체제, 취학연령, 학기, 교육과정 등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원할 경우 1~2년간 유치원에 다니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 정도에 1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여겨지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며, 주로 4~5세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준해서 실시되는데 의무교육에 준한다는 뜻은 학비는 국고에서 대주고 있으며 가정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 보내도 된다는 의미이다. 4세 이하의 유아교육은 공사립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각 주에서 요구하는 1년 또는 2년의 수료과정이나 전문학사학위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유아교사가 될 수 있고, 실습에 들어가는 예비 유아교사들은 신원조회 및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교사와 자주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친밀도가 높아 교사에 대한 존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한국과 캐나다의 보육현실비교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현장실습기간은 보육교사 6주 240시간, 유치원교사 4주 약16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유아보조교사 약500시간, 유아교사 44주 2회, 567시간을 이수하여야 해 한국에 비해 더 많은 현장실습이 필요하고, 대체인력 자체가 한국은 없으나 캐나다의 경우 Supply ECE 프로그램으로 대체인력을 항시 고용하도록 하고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풀타임 인력보다 시급이 높다.
- 교사 1인당 인원비율에서도 캐나다가 6~8명가량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급여체제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 공립고등학교 교사들과 같은 수준이고 경력이 쌓이면 초중고 교사로 올라 갈 수 있다.



메리피셔 학과장 세네카 소개



마가렛 오스본 교수 기념품 전달



세네카대학 보육센터



세네카대학 보육센터 시찰

## ●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사건은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원장과 학부모들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의무교육에 준하는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의 급여나 업무량을 적정하게 안배하며 시설은 주정부가 제시한 규정에 맞아야 하고, 지원금은 보육기관으로 직접 입금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③ 오타와 국회의사당(Parliament of Canada)

○ 방문일시 : 2017. 6. 26.(월) 11:00~12:00



캐나다자치 100주년 기념 성화



국회의사당

캐나다 의회는 군주,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나뉜다. 군주, 상원, 그리고 하원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세 부분은 모두다 공통적으로 의회의 운영 절차를 수행한다. 캐나다 의회의 전반적인 구성 방식은 영국 연방 왕국의 영향으로 영국 의회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지만 캐나다의 군주가 실질적으로 영국의 군주의 대리인이라는 점과 캐나다

의 상원의원은 상원직을 세습하는 귀족이 없다는 점이 영국 의회와 구분된다.

상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10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5세까지이다. 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29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 주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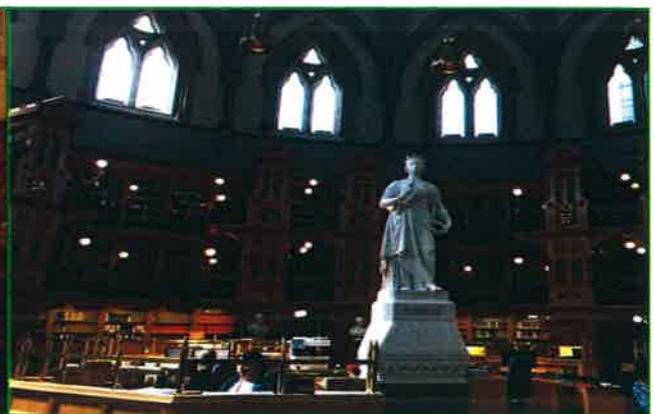
모든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하 양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다.

형식상으로 캐나다에서 영국의 국왕을 대표하는 인물은 총독으로, 임기는 6년이다. 그는 영국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으로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각료는 대개 하원에서 선출되며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내각은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행정조항 등과 같은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사당 내부



국회의사당 도서관 내부

#### 4 토론토 시청(Toronto City Hall)

○ 방문일시 : 2017. 6. 29.(목) 15:00~16:00

현재 토론토 신시청은 1958년 당시 토론토 시장이었던 필립스 시장이 토론토시가 개최한 대규모 국제 건축 공모에 응모한 520건의 설계가운데 핀란드 출신의 건축가 레벨의 작품이 당선되어 1961년부터 4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1965년 완공하였으며, 전체 구조는 넓은 열주식 기단 위에 두 개의 호형 고층 건물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원형 돔이 놓여진 특이한 배합으로 위에서 보면 돔은 눈동자를 호형 건물들은 아래위 눈꺼풀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돔 구조 안의 시의회실은 상징적으로 시의 눈동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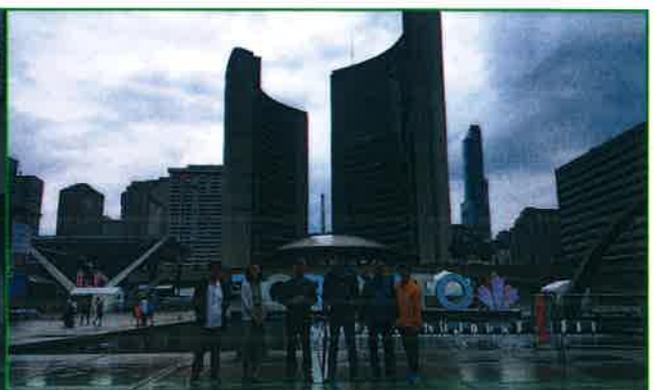
또한, 원형 돔을 받치는 기둥의 아래에는 푸른색 카펫으로 덮인 계단을 통하여 음푹 파인 “추모의 전당(Hall of Memory)”이라는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3,500명의 전몰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비망록이라는 것이 전시되어 있으며, 로비 오른 쪽 벽에는 길고 짧은 못을 박아 만든 부조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토론토시를 상징하는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시청사 앞 네이슨필립스광장에는 평화의 정원이라는 녹지 그리고 커다란 반사 연못과 분수가 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향후 우리시도 시청사(구청사)건립 할 때는 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상하여야 함이 바람직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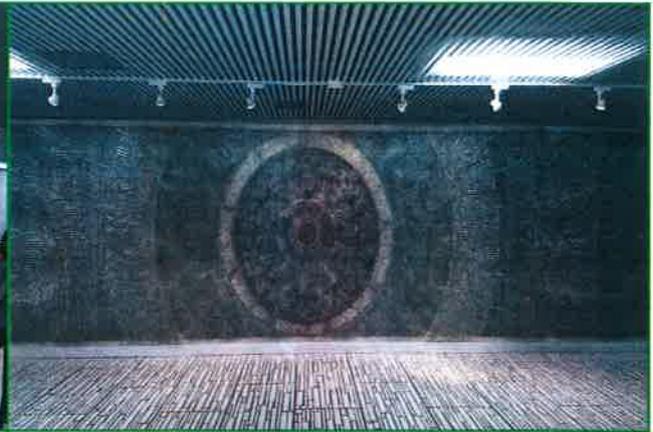
토론토 구시청



토론토 신시청



토론토 시청 내부 설명 경청



토론토시를 상징하는 메트로폴리스(파트리지 작)

## 5 총독관저(Rideau Hall)

○ 방문일시 : 2017. 6. 26.(월) 14:00~16:00

입헌군주제 국가인 캐나다는 대통령이 없는 대신 총리가 나라의 업무를 맡아 관리한다. 또한 캐나다는 영국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가 되는데 여왕을 대리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총독을 임명한다. 내각과 총리의 요청을 받아 여왕이 임명하는 캐나다 총독은 명목상 국가의 최고 지위를 갖는 입헌군주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총독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요인들을 위한 연회에 참가하거나, 올림픽과 같은 특별한 시상식에서 메달과 상을 건네주는 역할 등을 수행할 뿐 정치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현재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톤이 제28대 캐나다 총독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오타와 시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달리니 '리도홀(Rideau Hall)'이라는 이름의 관저가 나왔다. 정문을 지키는 근위병은 마치 영국을 온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싱그러운 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눈앞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녹음이 우거져 있고, 드넓은 잔디밭에서는 공놀이를 즐기는 현지 주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고위 관료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것도 놀랐는데 저렇게 공원처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그저 가벼운 일상처럼 보였다.

리도 홀은 관광안내인의 도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매년 200,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한다.



총독관저



故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식수

## ⑥ 몽모렌시 주립공원[ Montmorency Provincial Park]

○ 방문일시 : 2017. 6. 27.(화) 10:00~12:00

퀘벡시티로부터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몽모렌시 주립공원이 있다. 공원 내 몽모렌시 폭포의 이름 '몽모렌시'는 프랑스 탐험가 샤무엘 드 샹플랭이 붙인 이름으로, 자신의 후원자이며 1620년부터 1625년까지 뉴 프랑스의 총독을 지내기도 했던 몽모렌시 공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 한다. 높이가 83m에 이르는 몽모렌시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30m나 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진다. 세계 3대폭포의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웅장하고 거대한 맛은 없지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해 가늘고 긴 까닭인지 실제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지고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맛이 느껴지기도 한다. 폭포로 가는 길 오른편 저 멀리 아래쪽에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흐르고 강위에 놓여진 길고 긴 다리 끝나는 곳에는 오를레앙 섬이 보인다. 1535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첫발을 디딘 후 프랑스인들이 최초로 정착하기 시작한 곳으로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인들의 조상의 발자취를 그곳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몽모렌시 폭포



몽모렌시 폭포 정상

## 7 퀘벡시티(Quebec City)

○ 방문일시 : 2017. 6. 27.(화) 14:00~17:00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퀘벡시티는 내륙의 끝자락에 위치해 남쪽으로 세인트로렌스 강이 흐르고 그 강은 세인트로망스 만과 연결되는 퀘벡 시티는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을 가진 곳으로 인구의 90%가 프랑스 출신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프랑스어이다. 도시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이며 성곽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되어 있는 성곽도시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산책로인 성벽은 퀘벡시티를 어퍼타운, 로어타운, 신시가지, 구시가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퀘벡시티의 랜드마크인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1893년에 건립된 호텔로,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된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 호텔의 이름은 프랑스 식민 시대의 총독이었던 프롱트낙 백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청동 지붕과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르네상스 시대의 샤토 스타일로, 플라스 다름의 남쪽 세인트로렌스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우뚝 서 있어 퀘벡 시티 어디에서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퀘벡의 상징물로 꼽히고 있다.



샤토 프롱트락 호텔



La Fresque de Quebecois 벽화

## V 시사점 및 발굴내용

우수한 자연경관과 세계2위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 그리고 천연자원까지 풍부한 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우리나라도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미래 후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번 연수를 통한 소감과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추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여 고양시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세계일류 도시 고양시가 만들어지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며, 연수결과 발굴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작성한다.

### 1. 사회보장제도

세계 여러 선진국 가운데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매월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의 액수도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C\$ 1,700정도 지급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은행에 통장 잔고가 C\$3,000이하) 본인은 임

대료의 약1/3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의료비는 100%무료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조제약까지 무료로 지급되며 모든 공공요금 역시 무료다.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은행에 부채가 있다면 파산 신청을 하여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고,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실업자에게는 봉급의 7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혼녀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비 무료혜택과 자녀양육비 등 생활 보호를 받게 된다. 비용은 매월 약 C\$1,400~1,700이다. 또한 연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에게는 저소득층 생활비라는 명목하에 매월 생활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제도를 전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 2. 교육제도 분야

국민 중 문맹자 비율은 1% 이하인데 이유는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고등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만18세 이하 자녀에게는 매월C\$160~200가량의 양육비가 제공된다. 교육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7.2%에 달하고,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은 총예산의 15.4%에 해당한다(1990). 헌법 조항에 따라 공공교육에 관한 것은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유콘 및 노스웨스트 준주의 학교와 캐나다 전국의 원주민 교육,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 군인 및 군인가족의 교육, 사관학교에 관한 것은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밖에도 직업훈련학교와 대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65개 이상의 종합대학이 있어 고등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180개가 넘는 전문대학이나 예술대학에서 다양한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정치제도

영국식 의원내각제로 1982년 새 헌법인 '인권과 자유헌장 (Charter

of Right and Freedoms)’과 함께 독립적인 헌법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지금도 영국 여왕이 캐나다의 국가원수이며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왕을 대신하는 연방 총독과 각 주에는 주 총독이 있다. 사실상 영국여왕을 대리한 총독은 극히 미미한 권한을 지니며 의전상의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 행정권은 하원의 다수당 당수인 수상과 내각에 있다. 여기서 하원은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 의해 선발되며 임명제로 구성되는 상원과 합쳐져 캐나다 연방의회의 양원제를 이룬다.

지방자치제인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헌법개조 등의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지리적 큰 규모가 전체 통치를 하기에는 불가능 하고 자치주와 연방정부간의 화합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체제가 적합하다.

## VI 연수 후기 및 소감

- 6.25일부터 7.2일까지(8일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킹스턴-나이아가라-인천공항 도착 일정으로 캐나다 연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면서 연수단은 어려움 없이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 모든 여건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넓은 대지 위에 세계 최대의 부국을 세우며 모든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 흔적과 천혜의 자연경관의 웅장함을 볼 때 가슴 벅찬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 우선 형식적으로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각 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인 캐나다는 국가의 수장은 상징적

으로 영국의 국왕이며 형식상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총독은 국왕의 개인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 1952년 이후로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 총독의 지위는 명목상의 지위에 불과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연방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의 수장은 총리로 연방 하원 내 다수당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제지만 실질적으로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정치적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회의사당, 시청사, 총독관저 등을 방문하여 캐나다의 정치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나이아가라는 연간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감상하러 방문하는 국제적인 명소이다. 폭포 주변에는 번지점프, 줄라인, 제트보트, 유람선, 헬기투어 등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폭포가 보이는 호텔에서서는 폭포의 전경이 한 눈에 보였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관광이 모여 있는 셈이다. 자연을 최소한의 개발만 하고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마인드가 이백년이 지나도 후대가 이땅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기에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한다.
  
- 캐나다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주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 높은 생활을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단순히 어떤 복지시설에서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로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터전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캐나다의 사회복지정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점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를 안겨준다.

- 연수 기간 중 캐나다의 사회복지수준은 도시 곳곳의 도로나 표지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본 장애인들은 그리 특별하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듯 했다. 그저 아이를 안고 가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 사람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 중 한 부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영어로 하면 결코 틀리지 않으면서 우리말로 할 땐 헛갈리고 틀리게 되는 건 아마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나쁜 버릇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회, 다름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화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비록 해외 연수는 여기서 마치지만 연수에서 느낀 것이 의정활동의 밑거름이자 시작이 되길 기대해 본다.